

큰스님 수행한담

욕심을 버리세요



◇ 지난 6월 금강산을 방문한 혜정스님(사진 맨앞)이 구룡폭포를 향해 가고 있다.

그 버릇은 것 없이 한평생을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불교는 1600년 동안 불자들의 보시만 받아먹고 베푸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전생의 일을 알 수 없지만 금생에 받는 것이 전생의 업이라면 우리는 전생이 너무도 남에게 시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보시하지 아니하고

니다. "백세후에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리까" 하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비니로 스승을 삼으라(비니 위사뵤니 爲師)"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니는 곧 계율(戒律)입니다. 계율로 스승을 삼으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계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계는 불교인의 불변의 운리입니다. 계행이 없는 교단은 허깨비교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승려 개개인 역시 마찬가지로 인

'네 마음자리 찾아라' 청담 은사님의 경책 한시도 놓은적이 없어요

모르는 이에게 욕지거리를 당하며 매맞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말리지 말고 '스님, 인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지켜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지로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왜 행인이 다짜고짜 스님의 목숨을 붙들고 심한 욕을 퍼붓는 일이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내가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까맣게 잊은채 그 행인을 붙들었다 호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스님이 왜 그러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지요. 그런일을 수차례 겪고 나서야 내가 지은 인과의 업은 내 스스로 풀지않고서는 안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속에서 만나는 불쾌하고, 힘든 일들을 그저 신경질이나 내면서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지은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 실로 이것을 익히면 모든 억압에서 해탈할 것이며 모든 부자유에서 대자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는 스스로 얻어지게 마련입니다. 선정력(禪定力), 이것 하나를 얻는다고 모든 고통을 견디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봉암사, 해인사 등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선 수행을 했는데 마산 성주사 성철스님 밑에서 참선수행을 하던 시절에 경전과 선어록을 밤낮으로 읽으며 깨달음에의 열정을 불태웠던 시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좇아 마음자리 하나를 깨닫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몇시간씩 화두를 붙잡고 매달렸던 깨달음은 그리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돈독 돈독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갖가지 고민으로 앉아있을때면 성철스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제대로 안할라카른 진작 내려가라"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성철스님을 비롯해서 깨달음을 향해 많은 수많은 수행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가슴속에 남아, 지금까지도 나를 꿈꾸게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삼년동안 나는 문수사가 있는 삼각산 꼭대기를 몇번이나 오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 덕에 나의 다리 힘도 세어지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전한 의연하게 서있는 청산과 그 위를 유유히 흐르는 백운(白雲)이 나에게 무수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 값이 있는 가르침을 아직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미처 다 배우기도 전에 자연 환경과 괴로움 청산이 침묵을 깨고, 백운이 방랑을 멈춘다면 그것은 너무도 크나큰 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삶은 실로 허망한 것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큰절 주지는 해서 목숨을 버리고, 병에 걸려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진정 불제자로 살아가길 청원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의 청정한 삶을 함께 좇아갑시다. 탐욕을 떠난자, 노여움을 떠난자, 어리석음을 떠난자, 번뇌의 더럽힘이 없는 자, 애착을 떠난자, 집착이 없는자,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말로 진리의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이 대 우주 대 자연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며 미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김 일 곤

(주)우광안전 소장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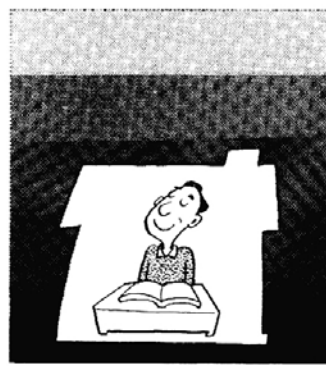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생활인들도 머리까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 이러한 확신이 구체화 되면서 나는 '자시(子時) 가행(加行) 정진 기도'를 실천하게 되었다. 자시 가행 정진 기도는 (금강경)의 핵심인 '실무중생 특별도자(實無衆生 得滅道者·실로 제도 받을 중생이 본래 없다)'임을 깨치는 수행법으로 하루 3시간 자고 새벽 1시쯤 일어나 5시간을 계속하여 <금강경>을 수지속송하고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장, 고풍, 질병, 가난 등이 본래 없는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이 구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참 나를 발견하여 생사해탈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수행목적으로 하는 수행법이다.

발버둥치며 죽은 모습을 보았고, 그뒤 부처님 백광명(百光名)이 몸에 쏟아지는 체험을 하였다. 그 후부터는 공부할 때마다 환희심과 더불어 항상 머리가 수정처럼 맑고 시원했다. 세상은 참으로 중요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새롭게 다가옴을 실감하여 참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고 미워하고 날 원수처럼 대하던 독기에 가득찬 가족들 모습이 어느날 눈 녹듯 일시에 사라졌다. 전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특히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고 미워하고 날 원수처럼 대하던 독기에 가득찬 가족들 모습이 어느날 눈 녹듯 일시에 사라졌다. 전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특히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고 미워하고 날 원수처럼 대하던 독기에 가득찬 가족들 모습이 어느날 눈 녹듯 일시에 사라졌다. 전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子時 금강경 독송 3년에 아상녹여 생활속에 늘 "감사합니다" 실천

처음 기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졸음이었다. 기도는 고사하고 졸음 전장의 연속이었다. 수마를 이기기 위해 정진하다보니 졸음이 졸기는 가족나들이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때로는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 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하면된다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에 개의치 않고 수행할 뿐이었다. 여러 도반들과 함께 49일을 공부 주기로 하여 계속 반복했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꿈같이 기뻐하며 점심을 받는 식으로 공부는 진행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더욱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발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부처님께 바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어느덧 이러한 생활이 습관화 되었고, 차츰 공부에 즐거워지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동시에 환희심이 나기 시작했다.

고집 불통이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 망상으로 항상 자기자신을 굶던 내가, 부처님 덕분과 부처님 세계에 다시 태어나 행복을 맛보게 되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생활속에서 <금강경> 가르침'을 보다 쉽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좋을 때, 나쁜 때 할 것 없이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번 이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읊조린다. 감사한 마음을 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는 곧 <금강경> 실천의 핵심인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心·분별없는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내라. 즉 업보없는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내라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참나의 공부 시작되는 만큼 매사에 발심하지 않고 더욱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발원해 본다.



자시 가행정진 기도를 한지 3년이 되는 어느날에는 '나(我)'라는 아상이

실현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지 어언 10년. 오늘도 새벽 가행정진과 더불어 부처님과 함께 즐겁고 힘찬 하루가 시작된다. 이제 내가 가야할 길은 청정한 마음 닦으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와 명예보다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 "남탓하지 말고 내 인과부터 살피세요"

어찌 내생에 영광스러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부자로 태어나서 호사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다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복이 있는 얼굴, 복이 없는 얼굴, 가난한 얼굴, 부한 얼굴 천차만별입니다.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건봉사 이회명(李晦明)스님은 천석(千石)이나 되는 전답을 모조리 소작인에게 양도해 주고 무일푼이 되고서도 '야! 시원하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간탄과 탐욕의 땅에서 벗어나고보니 시원하기 그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남보다 조금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욕심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됩니다. 그러한 불행은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열반경>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

다. 시대에 따라 계율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 근본은 변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욕(忍辱)은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와도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며 인욕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통이 찾아와도 참는 것입니다. 청담스님은 인욕(忍辱)이 바로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수행은 물론이요 피고화인으로서 대중들을 이끌며 선행공덕을 짓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적극적인 수행한다면 억지로 참지않아도 수월하게 인욕수행이 이뤄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욕수행과 함께 청담스님은 인과를 철저히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은 나를 비롯한 모든 상좌들과 혹여 당신이

떠난 일이 닥쳐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같은 인욕수행과 더불어 한 평생을 게으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精進)이 아무것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진 또 정진해야 합니다. 시타르타재자는 6년동안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연고로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찌 인생의 6년 뿐이었겠습니까. 삼이승(三乘)에 걸쳐 스스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결과인 것입니다.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이루기위해 선정을 닦으며 부처의 자리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의 수행과정입니다. 욕(欲)바라질 모두가 소중하지만 이 선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깨치면 천지우주간에 두려움도 없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며 다시 더 바랄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라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더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가법처리
· 규격: 450m x 450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1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익한 기운을 주 받고 불길한 운세를 해소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水液)의 영향이 완전히 차나오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빙다라 깔아놓았던 동안을 모두 견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나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차(佛車)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산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펼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들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책자 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생행정도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1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